

〈최고운전〉 탄생담 재검토

장곤*

— <차 례> —

1. 서론
2. 〈최고운전〉 탄생담의 모호성
3. 〈최고운전〉 탄생담의 특징
4. 결론 - 문학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최고운전〉의 탄생담은 설화적 신성성에서 소설적 신성성으로의 변화과정을 보여준 중요한 자료이다.

설화시대에서 이물교구설화는 주인공 혈통의 신성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금돼지의 자식으로 태어난 최치원이 부계의 신성성을 이어받아 중국까지 문명을 떨쳤다.

그러나 소설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물교구설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다. ‘금돼지의 자식’이라는 점은 더 이상 최치원의 신성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동시에 오히려 비방하는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최고운전〉의 작가는 〈백원전〉의 구성과 지하국대적퇴치설화를 활용하여 금돼지를 제거하고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 아님으로 변형시켰다. 또한 최종이라는 인물을 끌어들이 최치원의 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최치원을 正名 해주었다. 이처럼 〈최고운전〉은 이물교구설화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신성성을 부정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최치원에게 신성성을 부여하는 다른 방식을 모색하였다. 이것이 바로 적강담이다. 천계에 있는 신선이 죄를 지어 잠시 인간에 내려왔다는 적강화소는 최치원으로 하여금 천상의 신격을 지니고 현세에 탄생하게 하며, 영웅성을 부여해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수료.

여러 차례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였다.

주제어 <최고운전>, 탄생담, 이물교구설화, 지하국대적퇴치설화, <백원전>, 적강화소

1. 서론

<최고운전>은 실존 인물인 崔致遠(857~?)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은 최치원의 실제 행적과는 상당히 다르다. 특히 이 작품에서 최치원의 탄생은 금돼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최치원은 금돼지에게 납치되었던 여자가 낳은 자식이며, 이러한 변고로 인해 아버지의 의심의 받아 버림까지 당하였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최치원이 사실은 하늘에서 적강한 선관이었다.

<최고운전>에 나타난 최치원 탄생담에 관한 연구는 그의 근원과 의미를 찾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 연구는 주로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국근원설화에서 찾는 경우이며, 하나는 기존의 금돼지 전설과의 관계를 논의한 것이고, 마지막은 중국소설 <白猿傳>과의 영향 관계를 논한 것이다.

먼저 한국근원설화와의 관계를 논한 연구를 살펴보자. 장덕순이 그 선편을 잡았다. 그는 최치원의 출생전설은 阿娘傳說, 夜來者傳說, 地下國大賊退治傳說, 異類交婚傳說的 결합체로서 최치원 혈통의 비상함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¹⁾

한석수의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한석수는 최치원의 탄생담이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아래자 설화, 관부의 요괴 설화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

1) 장덕순, 「최치원과 설화문학-고운전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논총』 4,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 1976, 55~64쪽.

라 하였으며 이는 영웅의 신성성을 표현하는 장치라고 하였다.²⁾

박일용은 최치원의 혈통을 두고 현실적 질서와 서사적 상징 사이의 아이러니가 나타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최치원은 생물학적 질서나 가족 관계에서는 최충의 아들로 설정하고 서사적 질서에서는 최치원이 금돼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여타 논의와 달리 최치원은 생물학적으로 최충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치원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것은 무력한 최충의 혈통을 받은 때문이 아니라 금돼지의 혈통을 물려받아 신이한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 거듭 강조한다. 즉, 최치원의 신이성은 금돼지의 혈통에서 전해졌다고 주장한 것이다.³⁾

한편 유광수는 최치원 탄생담의 원천설화는 아래자설화와 지하국대적 퇴치설화 둘 뿐이라고 지적하며, 두 설화의 조합으로써 최치원의 신이한 혈통을 강조하면서도 최치원이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형성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⁴⁾

두 번째로 금돼지전설과의 관계를 논한 연구가 있다. 최삼룡은 각 지방에서 전하는 ‘최치원과 금돼지’ 전설을 모아 놓고, <최고운전>의 최치원 탄생담이 이 전설들을 수용하면서도 이러한 설화들이 갖추고 있는 異物交媾의 전기성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성을 띤 출생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지괴설화에서 소설로 가는 진일보한 출생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돼지의 존재는 최치원이 잉태시 仙界의 靈氣를 몸에 받았음을 상징적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였다.⁵⁾

2) 한석수, 『최치원전승의 연구』, 계명문화사, 1989, 111쪽.

3) 박일용, 「<최고운전> 작가의 의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16,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9, 149~155쪽.

4) 유광수, 「<최고운전>의 원천소재 활용 양상과 ‘의미 겹침’으로서의 소설」, 『溫知論叢』 29, 2011, 250~275쪽.

5) 최삼룡, 「<최치원의 출생담고> - 최치원의 출생과 관련하여」, 『어문논집』 25, 고려

마지막으로 중국의 소설 <백원전>과 영향관계를 다룬 연구로 김현룡의 논의를 뽑을 수 있다. 김현룡은 高尚顏의 『效顰雜記』에 있는 기록에 의하여 소재면에서 중국소설 <백원전>의 영향을 받았으나 <백원전>은 괴수 퇴치의 영웅적인 활동에 중심을 둔 반면에 <최고운전>의 탄생담은 異物交媾로 태어난 아이의 혈통에 중심을 두었다고 지적하였다.⁶⁾

이 세 방향의 논의는 각각 다른 시각에서 출발하였으나 최치원의 탄생담이 최치원의 신성성을 표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러한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작품에서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최치원 탄생담이 최치원의 신성성을 담보하는 장치라고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이물교구설화(혹 아래자설화)에 속해 있는 점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가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물교구설화와는 상당한 거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최충을 최치원의 아버지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치원과 금돼지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치원의 가문을 분명하게 자리 잡게 했다. 작가가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 아님을 正名해주려는 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적강화소에 대한 수용이다. 한국 고전소설에서 적강화소를 수용함으로써 인간 부모에게서 태어난 주인공에게 영웅성을 부여하는 것은 관례이다. <최고운전>에서도 여타의 고전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웅성

대, 1985, 815~831쪽.

6)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시기와 출생담고」,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1~28쪽.

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적강화소를 수용하고 있다. 즉, 더 이상 금돼지를 통한 신성성 부여는 아니라고 하겠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에 착안하여 최치원 탄생담의 구조와 의미를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운전>의 탄생담이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더불어 고찰하고자 한다.

<최고운전>은 후대로 이어지면서 이본의 변개가 있었지만 최치원의 탄생담에 관한 부분은 거의 같다. 따라서 본고는 선본⁷⁾으로 추정되는 정병욱 본, 즉 김집의 <신독재수택본>에 수록되어 있는 한문본 <최고운전>⁸⁾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겠다.⁹⁾ 논의를 더 분명하기 위하여 世昌書館 <최고운전>도 부분적으로 참고하겠다.

2. <최고운전> 탄생담의 모호성

<최고운전>의 탄생담은 매우 독특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의 탄생 과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최치원의 어머니는 금돼지에게 납치당하였다가 돌아온 후 최치원을 낳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신라사람 최충이 문창령으로 임명된다.
- ② 최충의 아내가 납치당한다.

7) 권택경, 「『최고운전』이본 변이 양상」, 『청람어문교육』 32, 2005, 288~332쪽.

8) 정학성, 『역주 17세기 한문소설집』, 삼경문화사, 2000, 57~127쪽. 본고는 이 책에 수록된 <최고운전> 원문을 인용하겠다.

9) 박일용은 <해동인물총기>에서 있는 ‘최치원 사적’을 증거를 들어 조심스럽게도 <최고운전>의 창작시기가 1389년 이전으로 추정할 바가 있다. 그러나 <해동인물총기>는 위서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본고에서 일단 연구텍스트로 택하지 않겠다.

- ③ 최충이 아내의 손에 매어준 빨간 실을 따라 납치된 공간을 찾아간다.
- ④ 금돼지가 최충 아내의 다리를 베고 있다.
- ⑤ 鹿皮로 금돼지를 죽인다.
- ⑥ 아내가 최충과 함께 돌아와 6개월 만에 최치원을 낳는다.

구조만 봤을 때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 아니다. 사실은 작품에서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임신 석 달 만에 문창의 변을 만났다가 달을 넘겨 어머니를 되찾고 여섯 달이 지나 아이를 낳은 것이다.¹⁰⁾

작가는 최치원의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잡혀갔다고 주장한다. 이 서술대로라면 최치원은 금돼지의 자식이 아니라 최충의 아들이다. 이후 작가는 다시 한 번 작품에서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충의 아내는 고을에 들어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집에 있을 때에 임신했던 것이 틀림없다.¹¹⁾

이처럼 확실한 작품 내적 증거도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작가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는 역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최치원을 금돼지의 자식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당대에는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몽인(1559-1623)은 『頭流錄』의 <懷賢>에서 “세상에서 는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라 하는데, 가야산에서 수련하여 문장이 공교 해졌네(世傳崔子金猪産, 鍊業伽倻文字工)”¹²⁾라고 하였다. ‘世傳’이하는

10) 妊之三月而遭文昌之變 逾月得母 六月以生, 100쪽.

11) 冲妻返郡而生子 是在家時孕之必矣, 100쪽.

말에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 최치원이 금돼지 자식이라는 믿음이 공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현전하는 최치원 설화에서도 확인된다.¹³⁾ 이러한 모든 사실을 고려하면, 최치원은 금돼지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최고운전>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작가의 강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최치원이 금돼지의 혈통을 받은 것으로 이해한다.¹⁴⁾ 이는 어머니가 금돼지와 교구를 통하여 최치원을 낳았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이물교구설화에 해당한다. 흔히 夜來者傳說로 알려진 이물교구설화는 영웅의 탄생을 담보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최치원이 금돼지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런데 <최고운전>에서 최치원의 탄생과정은 이물교구설화에 地下國大賊退治說話가 결합되어 있다.¹⁵⁾ 주목해야 할 점은 이물교구설화와 지하국대적퇴치설화는 사실상 대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물교구설화에서의 이물은 神聖性을 가지고 있으며 이물의 신성성을 물려받은 아이는 영웅이 된다. 반면에 지하국대적퇴치설화에서는 이물은 납치라고 하는 악행을 저지른 존재로 제거의 대상이 되며 신기

12) 유몽인, 『於于集』, 『於于集後集』 卷之二, 한국고전번역원 DB.

13) 한석수, 앞의 책, 40~44쪽. 물론 납치되었다는 단락이 있는데, 이는 본래의 설화가 소설에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비록 한 편이지만, 최치원의 어머니를 금돼지로 설정한 이야기도 있어 주목된다.

14) 박일용은 금돼지가 최종 아내의 다리를 베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최치원의 탄생담은 성격과 기능을 기준으로 볼 때 지하국대적퇴치설화보다는 이물교구설화(아래자설화)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박일용, 앞의 논문, 150쪽).

15) 한석수, 유광수, 박일용의 논의는 이렇다. 물론 각각 연구자의 논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地下國大賊退治說話와 異物交媾說話(특히 아래자전설)는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설화유형이다.

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신성하지 않다.¹⁶⁾

이러한 이질적인 두 설화가 결합됨으로써 최치원 탄생의 모호성은 심화된다. 영웅적 혈통을 제공한 이물(금돼지)이 제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물의 신성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즉, 금돼지는 더 이상 영물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하는 존재가 된다. 게다가 작가는 계속해서 최치원이 금돼지의 혈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이 모친이 잉태한지 수삭만에 도야지 변을 지내고 십사삭만에 생산을 하였으나, 자고로 큰 사람은 열달이 지난 후에 났나니, 요임금과 효소황제는 십사삭에 낳았으니 어찌 달수를 교계하여 뉘 혈을 구별하라? 이 아이는 최충의 아들이 분명할 뿐 아니라 무슨 짐승이든 서로 교합하여 새기를 낳을 것 같으면 어드든 낳는 법이다. 도야지 자식일진대 어찌 닳은 데가 업으랴!¹⁷⁾

위 인용문은 1952년에 세창서관에서 출판된 <최고운전>의 내용이다. 이처럼 후대로 갈수록 <최고운전>에서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 아니란 것은 더 분명하게 강조된다. 금돼지를 짐승으로 보고 있으며 금돼지의 신성성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돼지가 주는 혈통의 신성성도 부정되고 만다. 과연 최치원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16) 기존 연구에서 지하국대적퇴치설화에서의 이물을 “사회질서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으며(유광수, 앞의 논문), “여성을 억압하는 존재”로 보는 관점(윤복희,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공간 구조와 의미』, 『어문논집』 7, 1997, 101~125쪽)도 있다. 그러나 어느 관점이든 이물의 이미지는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神聖하지 않고 악의 상징이다.

17) <최고운전>, 세창서관, 14쪽.

3. <최고운전> 탄생담의 의미

1) 이물교구설화의 신성성

이물교구설화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전 세계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른 시기에 출현된 이물교구설화는 주인공의 신이한 혈통을 표현할 때 많이 활용되었다. 원시사회에서 동물 사냥은 결코 기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한 결과이다. <山海經>을 살펴보면 동물의 모습은 대부분 신의 모습과 흡사하다. 예컨대 女媧는 人面蛇身으로써 얼굴은 사람이었으나 뱀의 몸을 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이 신격화되면서 토렘승배가 생겨나게 되었다. 토렘승배에게서 다시 祖先승배로 발전하였는데 이와 수반하여 영웅들이 생겼다.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 사실은 신격화되는 인물이다. 예를 들어, 神農氏는 농업생산을 처음 시작하였고 醫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웅이 되었고 炎帝가 되었다. 그런데 『帝王世記』에서 神農氏는 모친이 龍과 교감하여 낳은 자식이라고¹⁸⁾ 기록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이물교구로 탄생한 주인공들은 모두 영웅적 행위를 보여준다. 백제의 무왕¹⁹⁾이 그렇고, 견훤이 그렇다.²⁰⁾ 무왕은 모친이 池龍과 교감하여 낳은 자식이고, 견훤은 지렁이와 교합하여 낳은 자식이다.²¹⁾ 이들은 모두 부계의 혈통을 신성시하고 있다. 이물교구설화는 신과 신의 자식

18) 炎帝神農氏 姜姓 母曰女登 女媧氏之女 爲少典妃 感神龍而生炎帝 人神牛首, 『帝王世記』.

중국기본고적고 참조

19) 一然 撰, 金奉斗 譯, 『三國遺事』, 교문사, 1993, 208쪽.

20) 一然 撰, 金奉斗 譯, 『三國遺事』, 교문사, 1993, 213쪽.

21) 견훤이 역사 속에서 패퇴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이물교구설화가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견훤의 탄생담은 패퇴 이전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만큼 이물교구설화는 주인공의 영웅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인정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영웅이 된다는 사고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면서 탄생에서 변모를 꾀한 결과라는 지적²²⁾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처음에 이물교구설화는 영웅의 신이한 탄생을 서사화하는 설화 형식이다. 최치원은 신라 사람으로 당나라까지 가서 문명을 떨친 뛰어난 인물이다. 따라서 최치원의 탄생에는 뭔가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소설 시대가 오기 전에 그 특별한 장치는 바로 이물교구설화이다. 이를 통해 최치원은 무왕이나 견훤처럼 이물인 금돼지의 자식으로 탄생하게 된다.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등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라는 설정 자체가 최치원의 영웅적 탄생을 담보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고운전>에서 이물로 등장하는 금돼지를 당시 사람들은 신성시하였을까?

李承休(1224~1300)의 『帝王韻紀』에서 금돼지의 신성성을 찾을 수 있다.

龍王復出謝	용왕이 다시 나와 사례한 다음.
引入深宮裏	깊은 궁궐 안으로 영입해
遂妻以長女	장녀로 그의 처를 하였다.
乞與金毛豕	금돼지를 청하였는데
兼以七寶隨	칠보까지 함께 붙여
載送西江涘	서강의 강가까지 실어 보냈다.
還來松岳居	돌아와 송악에 거처하면서
於焉誕聖智 ²³⁾	이어서 성스럽고 지혜로운 분을 낳았다고

이 기록은 作帝建이 용궁에서 가지고 온 금돼지로 松岳의 집터를 잡

22) 임치근, 『영웅소설연구-탄생과 투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5, 25쪽.

23) 『帝王韻紀』 下, 本朝君王世系年代, 33언부터. (김현룡, 앞의 논문 재인용).

아 거기서 왕건을 낳았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고려세계>에도 실려 있다. 금돼지는 고려를 건국할 인물의 탄생을 준비한 영물이다.

이처럼 금돼지는 신성성을 가진 동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원형성은 신성성을 띠게 된다. 이물교구설화가 영웅적 주인공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의 사람들은 금돼지의 신성함을 물려받은 최치원이 중국 당나라에까지 가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최치원의 혈통을 높이는 금돼지 원형설화가 널리 유포되고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물교구설화의 신성성은 끝내 유지되지 못한다. 어느 순간 신성하게 여겨졌던 부계의 혈통은 제거의 대상이 된다. 이물교구설화의 대표적 형태인 <야래자 전설>의 신이한 부계가 죽임을 당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증거이다.²⁴⁾ 이런 의식이 지배하는 한 이물교구설화는 부정되어야 한다.

2) <江補總白猿傳>의 수용과 신성성의 부정

이물교구설화가 부정될 때, 이물교구설화는 더 이상 영웅의 탄생에 적합한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제거의 대상인 부계 밑에서 태어나 놀림(卑下)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²⁵⁾ 대표적인 작품이 <江補總白猿傳>²⁶⁾이다. <백원전>에서 구양순은 어머니가 원숭이에 의해 납치당했다가 태어난 아이로 원숭이랑 닮았다고 묘사된다. <태평광기>의 권444에 수

24) 장덕순, 『야래자전설고-수리산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49~50, 1970, 261~267쪽.

25) 앞에서 견훤이 지렁이의 자식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필자는 애초에는 지룡(池龍)이었던 것이 견훤이 패퇴하고 난 후 발음이 유사한 지렁이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속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물교구설화의 신성성 쇠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6) 이하 <백원전>을 부름.

록되어 있으며 部門別로 분류할 때 畜獸에 속해 있다. 龍이나 神仙과 달리 畜生에 속해 있는 걸 보면 <백원전>의 異物交媾談이 결코 구양순의 혈통을 신성시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명나라 胡應麟은 『少室房山筆叢』에서 <백원전>을 소개하면서 “<백원전>은 당나라 사람이 구양순을 비방하는 내용이다. 구양순의 모습이 자못 수삭(瘦削)하고 원숭이와 닮았기 때문에 당시 무명자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 그를 비방하였다”²⁷⁾라고 하였다. 실제로 구양순의 얼굴이 원숭이랑 닮아서 장손무기(長孫無忌)가 놀렸다는 고사가 있다.²⁸⁾

그런데 조선의 문인 高尚顏(1553년~1623년)은 『效顰雜記』에서 <최고운전>의 최치원 탄생담이 바로 이 <백원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누가 지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거기에 금돼지 일이 매우 상세히 서술되어 있었다. 가만히 혼자 마음속으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뒤에 唐史를 열람하다가 거기에서 歐陽詢이 원숭이를 닮아서 당시 사람들이 『白猿傳』을 지었으며 그래서 비방이 그 어버이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한 뒤에야 금돼지의 이야기가 호사자에게서 나왔다는 것과, 그리고 흰 원숭이의 이야기를 효빈하였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²⁹⁾

고상안이 얘기한 <백원전>은 <강보총백원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는 호사자가 <백원전>을 모방하여 금돼지 설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27) 白猿傳 唐人以謗歐陽詢者 詢狀頗瘦削 類猿猴 故當時無名子造言以謗之. 胡應麟, 『少室房山筆叢』, 中國基本古籍庫 참조.

28) 聳膊成山字 埋肩不出頭 誰家麟角上 畫此一獼猴. 長孫無忌, 『全唐詩』, 『與歐陽詢互嘲』, 中國基本古籍庫 참조.

29) 未知何人所作 而載金猪事 頗詳悉 竊以爲或然矣 後閱唐史 看他歐陽詢酷似獼猴 時人作白猿傳 謗及其親 然後知金猪之說出於好事者 而效顰白猿也無疑矣 高尚顏, 『稗林』 권7, 『效顰雜記』 上. (김현룡, 앞의 논문 재인용).

즉 금돼지 설화를 신성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최치원을 조롱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호사자들이 만든 이야기로 인식한 것이다.

<백원전>은 『태평광기』에 수록되어 있다.³⁰⁾ 『태평광기』가 이미 高麗 高宗 이전에 한국에 유입된³¹⁾ 기록을 통해서 <최고운전>이 <백원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두 작품을 비교하면 매우 유사하다.

	<백원전>	<최고운전>	비고
시작	구양홀이 예쁜 아내를 데리고 출정하였다가 長樂의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부하가 여기서 아름다운 여자를 훔쳐가는 神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함.	최충이 문창령으로 부임하기 전에 문창현에 아내를 잃는 사건이 수십 번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음.	같음
소식을 들은 후의 대책	십여 명의 계집종을 명령하여 아내를 지키라고 함. 令女奴十餘伺守之	매일 고을에 딸린 계집종들로 하여금 아내를 지키라고 함. 每令郡婢雜守其妻	같음
아내를 잃을 때	바람이 으스스하게 불고 주변이 어두컴컴해짐. 陰風晦黑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며 천지가 어두컴컴해짐. 黑雲四起 天地晦明	같음
납치 대상	구양순의 어머니	최치원의 어머니	같음
구원자	구양순의 아버지(구양홀)와 그의 부하	최치원의 아버지(최충)와 그의 부하	같음
납치자 동굴 찾을 수 있는 단서	아내의 신발로 동굴을 발견	아내의 손에 매어 두었던 실을 따라가 동굴을 발견	다름
납치자의 동굴	아름다운 나무들이 나열하고 사이에 진귀한 꽃이 피어 있으며 바닥에 있는 잔디밭이 담요처럼 유연함. 嘉樹列植 間以名花 其下綠芙 丰軟如毯 고요하여 다른 세계 같음. 杳然殊境	땅이 넓고도 기름지며 기이한 꽃과 무성한 숲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들이 꽃 사이에서 지저귀고 있음. 地廣且沃 異花叢林 比世之鳥鳴於花間 반드시 신선들이 사는 공간임 必神仙之地也	같음

30) 고상안은 唐史를 열람하다가 <백원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지만 『唐史』에는 <백원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31) 김현룡, 『韓國 說話·小說에 끼친 <太平廣記>의 影響 研究 : 주로 그 素材의 關聯性에서』,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1976, 39~64쪽.

구원과정	여자들이 원승이를 취하게 한 후에 침대에 묶자 구양홀이 칼로 배꼽 밑을 찢러 죽임.	사슴 가죽으로 금돼지를 죽임.	다름
구원 후	1년 만에 구양순 낳음	6개월 만에 최치원 낳음	다름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백원전>과 <최고운전>는 내용, 구조, 심지어 語句까지 비슷한 면이 보인다.³²⁾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작품에서 납치된 공간이 모두 仙界처럼 아주 아름답고 고요한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한국의 여타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의 공간과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³³⁾ 선행연구에서는 금돼지의 동굴이 신선이 사는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금돼지는 신성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최치원도 이러한 靈氣를 받아 신성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⁴⁾ 하지만 <백원전>에서 보이는 공간도 선경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32) 김현룡은 일찍이 <최고운전>이 <백원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그는 <최고운전>과 <백원전>의 차이점을 착안하여, <백원전>의 원승이 이야기는 구양순을 조롱하는 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최고운전>의 금돼지 이야기는 최치원이 초인적인 인간을 담보하는 장치로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두 이야기는 실제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고운전>의 구조뿐만 아니라 구절까지 <백원전>과 비슷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백원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필자도 수긍하지만, 그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운전>의 있는 금돼지 이야기는 최치원의 신성성을 담보하려는 장치로 사용된다면,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으로 설정하는 것은 더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정반대로 설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33) 지하국의 공간은 도적의 피수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 악의 세계이다. 배도식, 『지하국 대적제치 설화 연구』, 『동남어문논집』 14, 2002, 31쪽.

34) 최삼룡은 <최고운전>의 금돼지의 피납사건이 종래의 이물교구설화에서 볼 수 있는 금돼지의 자식이 아닌, 선계의 영기를 받으므로써 비범한 이물의 탄생을 보여주는 의미로 전환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물교구설화와 구별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계의 영기를 받았다는 주장이 역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 논리를 따르면, 원숭이의 공간이 선정인 만큼 구양순은 신성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구양순은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³⁵⁾

다만 <최고운전>에서는 ‘실’을 따라가 정체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한국 이물교구설화에서 이물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결국 이 부분만 보더라도 최치원의 탄생은 금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최고운전>의 작가는 이러한 원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롱하고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백원전>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³⁶⁾

사실 조선에서 최치원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았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이다.

우리 동방문학의 번성함이 중국으로 알려진 것은 최 문창부터였다.³⁷⁾

고운을 오늘날 나게 하였다면 반드시 할 만한 지위에 거하여 중화의 문화를 가지고 태평을 장식했을 것이며, 나 역시 그의 문하에 필연을 받들었을 것이다.³⁸⁾

35) <최고운전>에서 금돼지가 사는 공간을 선정처럼 묘사한 것 또한 <백원전>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36) 이지영이 지적한 것처럼 최치원을 금돼지 자식이라고 한 설화는 <최고운전> 창작 이전에 이미 전승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지영, 『기우문화의 맥락을 통해 본 <최고운전>의 형성』, 『국문학연구』 30, 2014, 63~86쪽). 따라서 고상안이 <최고운전>을 <백원전>의 모방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최고운전>의 작가가 기존에 없던 금돼지설화를 <백원전>에서 모방해 창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백원전>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금돼지설화를 새롭게 변형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상안의 기록을 통해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라는 설화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이미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최고운전>이 창작될 당시에는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라는 설화가 최치원을 비방하는 설화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37) 吾東方文學之盛 見稱中國 蓋自崔文昌始. 徐居正, 『東文選』, 卷之八六, 한국고전번역원 DB 참조.

최문창은 문장이 신이하고 식견이나 소행이 백세의 스승이다.³⁹⁾

<최고운전>의 작가는 고상안처럼 당시 학자들이 추존하는 최치원이 조롱이나 비방의 대상이 되는 금돼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불만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구양순은 원숭이의 아들로 태어나는 바람에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된다. 만약 <최고운전>에서 기존에 있던 금돼지설화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최치원은 구양순과 마찬가지로 금돼지의 자식이 되고 조롱하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작가는 어머니의 임신 시기를 밝히는 한편, 곳곳에서 최치원의 입을 통하여 자신이 금돼지의 혈통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부모가 애초 나를 금돼지 자식이라도 하여 이 곳에 버렸는데 지금은 부끄럽지 않아서 보시려 하는 것인가? …(중략)… 우리 어머니께서는 나를 배신지 석 달 만에 문창의 변을 만났다가 달을 넘겨 어머니를 되찾고 여섯 달이 지나 나를 낳은 것이네. 이로 본다면 과연 금돼지의 아들이 아님이 명백하여 의심할 나위가 없네.⁴⁰⁾

이는 최치원이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의 부름을 거절하는 대목이다. 최치원은 스스로 자신이 금돼지의 자식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다. 이로써 최치원은 더 이상 금돼지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최치원의 영웅성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38) 使孤雲生於今日 亦必居可爲之地 摘華國之文 賁飾太平 某亦得以奉筆硯於門下矣. 金瑤孫(1464~1498), 『濯纓集』, 『頭流紀行錄』, 한국고전번역원 DB 참조.

39) 崔文昌之文藻神異 其所見所行 眞可謂百世之士. 周世鵬, 『武陵雜稿』 卷之五, 『上李晦齋書』, 한국고전번역원 DB 참조.

40) 父母始以我名金猪之子以棄之于次 今不愧而欲見耶 (…中略…) 況於我之慈母 娠之三月而遭文昌之變 逾月得母 六月以生 以次觀之 果不爲金猪之子 而昭昭不疑, 100쪽.

3. 가문의 확정과 천상계 혈통의 강화

<최고운전>의 서두는 최치원의 가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부모를 밝히지 않은 설화와 비교해 보면 소설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최고운전>에서는 최치원의 아버지를 최종으로 설정하고 있다.

최치원의 자는 고운이라 하고 신라 사람인데, 문창령 충의 아들이다.⁴¹⁾

최충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작가가 창작한 인물이다. 다른 하나는 고려시대의 대문호 최충이다. 그런데 신독재 수택본의 제목은 <최문헌전>이다. ‘文憲’이 최충의 시호였다는 점에서 당대 독자들은 작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든, 최충을 고려인 崔沖(984~1068)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시대의 대문호 최충은 海東의 孔子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 속 주인공의 가문은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된다. 이후 고전소설이 가문의 확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⁴²⁾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최치원의 영웅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최치원의 영웅성을 담보해준 이물교구설화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작가는 끊임없이 최치원이 최충과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탄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설사 최충을 고려의 문인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곧 최치원의 영웅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고전소설 주인공의 아버지들이 매우 뛰어난 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영웅성을 위한 태몽이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최고운전>에서는 최치원의 영웅성을 보장

41) 崔致遠字孤雲 新羅人也 文昌令沖之子, 99쪽.

42) <최고운전>은 고전소설 가운데 아주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김현룡, 앞의 논문, 10쪽).

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 있어야만 한다.

천승이 말하기를,

“천제께서 내게 명하기를 ‘최치원은 천상에 있을 때 작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 가게 된 것이니 인간 세상의 녹녹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 죄 문장이 있어 막을 것 같으면 중지하고 부디 함부로 죽이지는 말라’

(…중략…)

“월궁에 계화가 아직 피지 않았는데 아마 피었다고 천자에게 속여서 아뢰 까닭에 인간 세상에 귀양 내려오게 된 것이네”⁴³⁾

이 내용은 최치원의 명령으로 비를 내린 이목에게 벌을 주려고 내려온 천신이 최치원에게 한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첫째, 최치원의 신분은 천상에 있다.

둘째, 천상에 득죄하여 인간에 귀양 온 인물이다.

이른바 적강화소이다. 적강화소는 우리의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천상의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가 지상의 인물과는 달리 영웅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한다. 천상에 있던 신선이 죄를 지어 잠시 인간에 내려왔다는 적강화소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현세에서 천상의 신격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그가 현세의 영웅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

버려진 최치원을 천녀들이 기르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43) 天帝命我曰 崔致遠在天上時 幸得微罪 以謫於人間矣 非人間碌碌之人耶 若崔文章在則止之 慎勿矯斬矣 (…중략…) 月宮未開花 誣以已開告于天帝 故下謫于人間, 110쪽.

그래서 금돼지의 자식인가 의심하여 바닷가에 버리니 하늘이 그 아이를 돌보아 천녀를 보내어 젖을 먹여 기르게 하였다.

이에 충의 아내가 소문을 듣고 최충에게 말하였다.

“애초에 이 아이를 금돼지의 자식이라고 지목한 까닭에, 하늘이 감감하게 어두운 마음을 알고 천녀로 하여금 이 아이를 젖 먹여 기르도록 한 것입니다.”⁴⁴⁾

이는 천상의 인물이 지상에서 고난을 겪을 때, 신이한 존재가 구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처럼 <최고운전>의 작가는 이물교구설화의 신성성을 버리는 대신에 천상의 혈통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여 최치원의 영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최충의 아들이라 설정하고 최치원의 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 농도가 열기는 하지만 가문을 설정하려는 의식을 보여준다 하겠으며 고전소설 속 가문의식의 초기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가문의식은 유교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념으로 인식되어 있다. 혈통을 유대로 이루어진 배타적인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의 번성과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가문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운전>에서 금돼지의 혈통을 부정하고 최충을 최치원의 아버지로 설정한 것은 최치원이 최씨 혈통임을 거듭 강조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교사회의 가문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최고운전>은 설화적 신성성을 벗어버리고 소설적 신성성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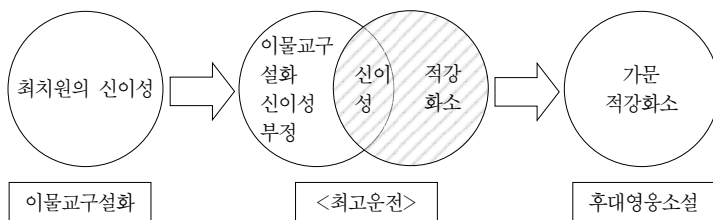
44) 故疑其兒金豬之子也 棄之海濱 天恤其兒 遣天女哺養之矣 於是冲妻聞之 謂充曰 始以此兒名爲金豬之子 故天知曖暗之意 令天女育養此兒, 100쪽.

4. 결론 - 문학사적 위치를 중심으로

<최고운전>은 이물교구설화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신성성을 부정한 작품이다. 이를 위하여 <지하국대적퇴치설화>가 활용되었는데, 그것은 <백원전>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다만 <최고운전>은 설화가 가지는 신성성을 부정하는 대신에 소설적 신성성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문의 설정과 적강화소를 통한 천상 혈통의 강화이다. 이러한 방식은 후대의 고전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한국 고전소설은 가문과 적강화소를 통해 주인공의 혈통을 드러낸다. 특히 적강화소는 주로 두 가지 방식이 보인다. 하나는 태몽의 활용이다. 이 경우는 대체로 자기가 천상의 인물이라며 죄를 지어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고 스스로 밝힌다.⁴⁵⁾ 다른 하나는 주인공이 다른 선관에게 직접 듣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고난을 겪거나 구원을 받았을 때, 자신의 전생 신분을 알게 된다.⁴⁶⁾ 어떤 방식이든 적강화소는 주인공에게 영웅성을 부여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5) 대표적으로 <유충열전>, <홍계월전>, <이봉빈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

46) <조웅전>, <유문성전>, <권익중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본래 이물교구설화는 최치원의 신이성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최고운전>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부정되었다. 하지만 스토리 자체는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작품 속에서는 다룰 수밖에 없었다. 다만 신성성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가문과 적강화소이다. 이러한 부분은 설화적 신성성에서 소설적 신성성으로의 변화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후의 고전소설에 영향을 주어, 영웅의 신이성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최고운전>에서 보인 신성성의 변이가 <최고운전>만의 독자적인 모습이라 아니라 나아가 설화에서 소설에 정착한 작품들 전반에서 확인되는 모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밝히도록 기약한다.

참고문헌

- 『東文選』, 한국고전번역원 DB.
『武陵雜稿』, 한국고전번역원 DB.
『少室房山筆叢』, 중국기본고적고.
『於于集』, 한국고전번역원 DB.
『濯纓集』, 한국고전번역원 DB.
一然 撰, 金奉斗 譯, 『三國遺事』, 교문사, 1993, 1~618쪽.
- 권택경, 「〈최고운전〉이본 변이 양상」, 『청담어문교육』 32, 2005, 288~332쪽.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시기와 출생담고」,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1~28쪽.
김현룡, 『韓國 說話·小說에 끼친 <太平廣記>의 影響 研究: 주로 그 素材의 關聯性에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1976, 39~64쪽.
박일용, 「〈최고운전〉 작가의 의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16,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9, 149~155쪽.
유광수, 「〈최고운전〉의 원천소재 활용 양상과 ‘의미 겹침’으로서의 소설」, 『溫知論叢』 29, 2011, 250~275쪽.
윤복희,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공간 구조와 의미」, 『어문논집』 7, 1997, 101~125쪽.
이지영, 「기우문화의 맥락을 통해 본 〈최고운전〉의 형성」, 『국문학연구』 30, 2014, 63~86쪽.
임치균, 「영웅소설연구-탄생과 투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5.
장덕순, 「아래자전설고-수리산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49~50, 1970, 261~267쪽.
_____, 「최치원과 설화문학-고운전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논총』 4, 세계평화고수아카데미, 1976, 55~64쪽.
정학성, 『역주 17세기 한문소설집』, 삼경문화사, 2000, 1~482쪽.
최삼룡, 「〈최치원의 출생담고〉 - 최치원의 출생과 관련하여」, 『어문논집』 25, 고려대, 1985, 815~831쪽.
한석수, 『최치원전승의 연구』, 계명문화사, 1989, 1~235쪽.

ABSTRACT

A new study on the birth tale of <CHoe Ko-woon cheon>

Zhang, Kun

The birth tale of <CHoe Ko-woon cheon> is an important material that show us the divinity's change process from floktale to novel.

In the floktale time, imulgyogu folktale is device for securing the divinity of hero's blood. So as a gold pig' child, Choe Chi-won succeeded his father's divinity that let him can distinguish his talent to China.

But with entering into the novel time, people' awareness about imulgyogu folktale changed. the floktale of gold pig no longer served to represent the divinity of choechiwon, but rather started slandering the Reputation of choechiwon. So the whiter of <CHoe Ko-woon cheon> Conjugated the structure of <white monkey cheon> and Ji Ha Kook Dai Jeog Toi Chi folktale to kill the gold pig and make choechiwon transformed into not the child of a gold pig. Beside the writer use the choe chong to get the blood to be clear. Like this, <CHoe Ko-woon cheon> can be called a novel that deny the divinity of imulgyogu folktale.

At the same time, the whiter found a different way to make choechiwon get divinity. this is descent motif. The descent motif is a story that the deity committed a crime guilty so he was exiled to the human world. by the descent motif, choechiwon get the godhead that make him Overcoming every difficult.

Key Words <CHoe Ko-woon cheon>, birth tale, divinity, imulgyogu folktale, <white monkey cheon>, descent motif.

논문투고일 : 2015. 9. 30
심사완료일 : 2015. 12. 8
게재확정일 : 2015. 12. 15